

혜초 스님 열반지 건원보리사는 중국 오대산 청량사 인근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저자인 혜초(慧超, 704~787)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로 추정되는 보리암을 지도 상에서 발견해, 유지로 여겨지는 몇 곳을 답사했습니다.”

혜초 스님을 가슴에 품고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20여년 동안 8차례 걸쳐 10여개국을 돌아다녔던 티베트불교 연구가 다정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이 <불교평론> 36집에 기고한 ‘혜초의 후반기 생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혜초스님 열반지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김 소장은 2005년 본지 인터넷 뉴스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연재한 ‘역 왕오천축국전 별곡-혜초 따라 5만리’란 기고문에서는 “혜초 스님이 <천발대교왕경>을 번역, 서문을 쓰고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는 금각사의 별칭일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소장은 “찾을 수 없던 보리사가 실체를 드러나 스스로 결론을 수정한다”면서, 지도상 발견된 건원보리사와 그터로 추정된 몇 곳을 답사해 정리했다.

혜초 스님 번역에 전념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의 열반지를 찾기 위해 스님의 후반기 연보에 주목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의 704년 출생설을 전제로, “스님이 천축국 순례를 마치고 728년 제2의 고향 장안성에 돌아왔을 때는 25세였다”고 말했다.

장안성은 현재 시안이다. 베이징(北京), 난징(南京), 뤼양(洛陽)과 함께 4대 고도(古都)로 손꼽히는 시안은 산시성(陝西省) 중심지로 현재도 인구 300여만의 대도시지만, 당나라 때는 인구 150만 이상이였다.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이 장안 도착 후 만년에 오대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50여년을 밀교승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김규현 소장은 “궁중 원찰 내도장에서 중책을 맡았고, <왕오천축국전>에서 쓰인 단어들에 헤메임에 의해 <입체경음의>란 용어집에 수록됐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김 소장은 서역에서 돌아온 혜초 스님이 여장을 풀었을 장소로 천복사(薦福寺)를 지목했다. 천복사는 혜

초 스님이 천축 순례를 떠나기 전 인연을 맺었던 중국 밀교의 태두인 금강지와 불공삼장이 주석하던 곳이다. 김규현 소장은 천복사에서 금강지, 불공삼장을 모시고 8년간 불경을 번역했다는 <대종조 사공대변정관지삼장화상 표제집>을 통해 “천축에서 돌아와 집도 절도 없던 혜초를 전문번역가가 필요했던 금강지와 불공삼장 등 두 스승이 반갑게 맞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 “금강지와 불공삼장 혜초 화상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혜초 스님 열반지는 건원보리사

김 소장은 “774년 불공삼장 입적 후 혜초 화상이 문득 무상을 느낀 것이 오대산으로 향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 말했다.

오대산은 높이 3058m로 중국 북동쪽에 위치했다. 다섯 봉우리로 이뤄져 오대산이라 불린다. 당나라 때는 법화, 화엄, 천태, 정토 등 종파와 신종 밀교 고승들이 사원을 개장해,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이 거처한 청량산과 동일하게 인식했다. 신라 선덕여왕 13년(644년) 자장 율사는 청량사에서 47일 기도 후 문수보살로부터 불사리와 금관가사를 받고 귀국해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을 조성했다는 설화도 있다.

혜초 스님은 780년 4월 1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해 다시 번역에 착수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이 스승 금강지로부터 전수받은 <대승유가금강

성해만주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珠實利千臂千鉢大教王經, 이하 천발경)을 50년 세다 월동안 탐구했다”고 말했다. 만주실리(曼珠實利)는 문수보살이다.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흰 사자를 타고 남대봉까지 친히 마중 나온 문수보살의 손을 잡고 열반에 들었다”며 혜초 스님의 열반 당시를

20년 혜초 스님 행적 추적 끝에 ‘오대산도’서 발견 밀종 도량으로 바뀐 청량사 인근에 ‘보리암’ 실존 추측

설명했다. 건원보리사가 혜초 스님 열반지라는 사실은 <천발경 서>에서 밝혀졌다. 김규현 소장은 780년 4월 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한 혜초 스님이 기록한 문헌(至唐建中元年四月十五日 到五臺山 乾元菩提寺 至五月五日 沙門慧超 首再錄)에 주목했다.

건원보리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김규현 소장은 “건원보리사는 금각사의 별칭”이라 했을 정도였다.

건원보리암 ‘오대산도’서 발견

혜초 스님 열반지인 건원보리암은 동향 막고굴 제61호 벽화인 ‘오대산도’와 동향연구원 편찬한 <동향석굴예술품>의 ‘막고굴 제61굴’ 책자 부록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김규현 소장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곳이 책자에 쓰인 보리지암(菩提之窟)이란 이름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보리지암’ 네 글자를 단서로 건원보리사를 찾아 나선 김 소장은 먼 저 지도상에서 ‘보리암’과 유사한 지명 및 사원을 찾아 분석하고 현지



김규현 소장이 건원보리사 유지로 추정하는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의 전경.

를 답사했다. 유일한 단서는 ‘오대산도’ 뿐이었다.

‘오대산도’는 13m×3.4m 크기의 장방형으로 막고굴 중 가장 큰 벽화로 꼽힌다. ‘오대산도’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불광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찰 지명과 설화들이 명기돼있다.

김규현 소장은 ‘오대산도’ 방제 순서에서 보리암을 유추했고, 금각사가 아닌 청량사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됐다. 금각사는 불공삼장-금강합량이었지만, 청량사는 화엄종 종찰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소장은 최정삼이 엮은 <오대산 육십팔사>에서 의문을 풀었다. “불공삼장이 대력 원년(766년) 황제에게 주청해 청량사를 증수했다. 이로 인해 청량사는 선종 총림과 정토 도량에서 밀종 도량으로 변했다”는 기록이었다.

김규현 소장은 불공삼장의 행장을 담은 <불공표제집> 등을 인용해 “당나라 대종 때 여러 선종사찰들이 밀종화됐다”고 뒷받침했다.

건원보리사 청량사 인근 위치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는 보리지암이며 청량사 인근에 위치했다”는 자신의 가설에 풀지 못한 의문점을 제시했다. 수많은 오대산 관련 자료에서 왜 보리암이 빠졌는지 그 중 하나다. 김규현 소장은 <대정신수대장경>과 <불공표제집> 등에서 불공, 함광, 혜초 등의 기록량이 다르다는데 주목하고, 선종과 밀종의 파워게임으로 기록 사실을 밝혀냈다.

김규현 소장은 “‘오대산도’는 사방 500리나 되는 광대한 오대산의 수백개 대상체를 한 장의 평면구도에 축약해 표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건원보리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여년 혜초 스님을 쫓은 김 소장의 연구는 이제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가 청량사 인근이었다는 사실까지 접근했다. 하루빨리 건원보리사 위치가 밝혀져 김 소장이 발원한 ‘해동사문보리혜초행적비(海東沙門菩提慧超行蹟碑)’가 세워질 기원한다.

조동섭 기자 cestana@buddhapia.com

천축 순례 혜초 스님

혜초 스님은 신라 승려로 어릴 때 출가하여 723년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 그곳에서 인도 승 금강지의 제자가 됐다. 그 뒤 불교성지인 인도(천축)를 찾아 부다가야를 비롯해 녹야원, 쿠시나गर 등 성지를 순례했다.

천축에서 돌아온 뒤 당나라에 머물며 금강지의 법통을 이은 불공삼장의 6대 제자로 이름을 떨치며, 불경을 연구하고 번역하며 후학을 양성하다 건원보리사에서 열반했다.

혜초 스님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프랑스 학자 펠리오에 의해 발견돼, 현재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왕오천축국전>에서 ‘천축국’은 지금의 인도를 말한다. 당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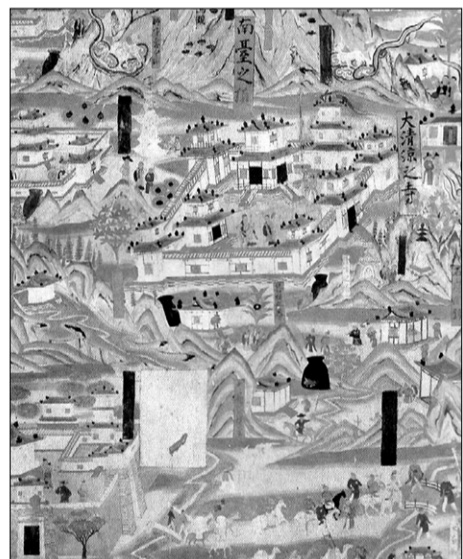


도는 동천축(꺽터), 서천축(알로르), 남천축(나시크), 북천축(잔다라), 중앙천축(마가다)의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오천축국’이다. ‘왕’은 그 곳을 다녀왔다는 의미다.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세권이였으나 앞뒤가 잘려진 채 발견됐으며, 1200여년 전 인도와 중국의 사정 등을 알려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다.

◇ 김규현 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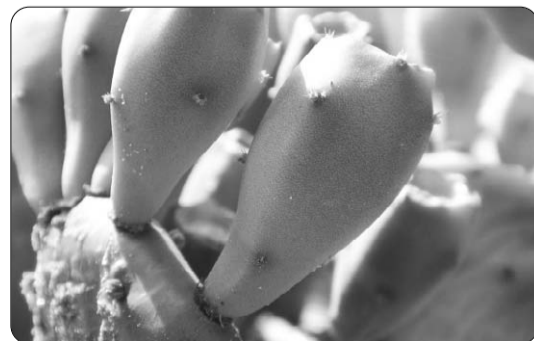
티베트불교문화연구소 김규현 소장은 성균관대학교와 해인불교전문간원을 졸업했다. 중국 북경의 중앙미술대학, 라싸의 티베트 대학에서 수인

목판화와 탕카(탱화)를 연구했다.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1993년부터 양조강, 황하, 갠지스강과 티베트 고원 등 12개국 오지를 배낭 하나 달랑 메고 홀로 누비며 ‘붓다뉴스’에 연재를 통해 <왕오천축국전>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오대산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작장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교포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정담보 구내치로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